

Q 방법론을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 인식유형 분석*

이지은**

본 연구는 다양한 의견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연구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커뮤니티 웰빙의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커뮤니티 웰빙 모형으로부터 추출한 34개의 Q 진술문을 Q 표본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전문가·일반 주민을 포함한 34명을 P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PQMethod 2.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분석 결과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관적 인식은 ① 인프라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프라자본 지향형, ② 보건·교육·고용·지역경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③ 자연환경·거주여건·치안 및 경찰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두는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의 3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해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함으로써 첫째, 지방정부가 주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 지방정부가 커뮤니티 웰빙 유형별 접근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정부가 커뮤니티 웰빙 유형에 근거한 정책 패키지화를 통해 행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의 획득 수단으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인 Q 방법론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커뮤니티 웰빙, Q 방법론, 주관적 인식, 인식유형

I. 서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물질적 성장을 목표로 삼던 기조에서 벗어나 'Beyond GDP'로 지칭되는 웰빙, 행복, 삶의 질과 같은 비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웰빙이 개인과 사회의 목표가 되는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자 OECD의 Better Life Index와 같은 지표들도 등장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6S1A3A2 924563), 2019년 행정학 학제학술대회 및 한국행정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소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연구원(jieunlee1212@gmail.com)

최근에는 개인이나 국가의 웰빙과 더불어 커뮤니티 웰빙이 주목받고 있다. 커뮤니티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이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기 때문에 (Tonon, 2017: 17), 커뮤니티 웰빙 수준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웰빙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 위치한 커뮤니티의 웰빙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웰빙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이승중, 2005), 주민 가까이에서 이들의 필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권력을 지닌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역할 기대에 따라 지방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커뮤니티 웰빙을 증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불평등, 소외와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필요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즉, 현재의 웰빙 수준과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웰빙 증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로 말미암아 다수의 학자는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커뮤니티 웰빙의 개념 확립, 커뮤니티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 웰빙 모형과 지표 구축,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 측정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웰빙은 지역사회의 객관적 상태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기 때문에(Sung & Phillips, 2016) 이를 객관적·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커뮤니티 웰빙 연구는 주로 「한국의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적인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추구하는 연구는 인간과 사회현상의 주관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김홍규, 2008). 더 나아가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선형적으로 만들어놓은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수동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제한적이다. 비록 일부 연구에서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관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는 AHP 기법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의 개별 지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한 연구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복잡한 커뮤니티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형화 방법이 유용하다. 유형화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하여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유형화를 통해 단순히 현상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형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김화환 외, 2015). 이와 같은 유형화의 가치에 따라 일부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구자의 시각에서 미리 설정한 설문

에 대한 응답 데이터에 기초해 단편적인 요인분석이나 군집 분석을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된 기존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커뮤니티 웰빙의 주관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주관적 의식, 태도, 관점을 도출하는데 적합한 분석기법인(Brown, 1996)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커뮤니티 웰빙 모형으로부터 34개의 Q 진술문을 도출하고, 34명의 P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은 무엇이고, 인식이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인식유형을 도출하여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웰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커뮤니티 웰빙

1) 개념

웰빙(wellbeing)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매우 친숙한 개념이지만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Diener et al., 2009; Lee & Kim, 2015). 일반적으로 웰빙은 심리적·정신적 만족, 개인의 번영, 행복 등으로 일컬어지며(Haybron, 2008), 삶의 질(quality of life),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같은 유사 개념과 종종 혼용되기도 한다(Murphy, 2010; McCrea et al., 2014). 그러나 웰빙은 개인의 건강, 삶의 질, 삶의 만족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Adams et al., 2017; Cummins, 2018), 개인 수준의 만족,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경제·커뮤니티 등의 요소까지 포함하는 다면적·다차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Marks & Shah, 2004; Rath et al., 2010; Markovich et al., 2018).

웰빙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개인에 초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에는 커뮤니티 또는 국가 차원의 웰빙이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했다(McCrea et al., 2014). 특히 1980년~1990년대부터는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Murphy, 2010: 5-6). 커뮤니티 웰빙은 ‘커뮤니티’라는 단위에 초점을 두며, 공동체라는 집합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서재호 외, 2012: 43) 일반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 등을 의미하는 웰빙과 구별된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 커뮤니티 웰빙의 개념은 커뮤니티에 속한 개인 웰빙의 단순 평균 또는 합이라고 보는 시각과 개인 웰빙의 총체를 뛰어넘는 커뮤니티에 내재한 무엇이 있다고 설명하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접근되고 있다(White, 2008; McCrea et al., 2014). 그런데 ‘커뮤니티’는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고 개인과 사회가 만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이익을 향유하는 장소이다(Wilkinson, 1991: 77; Murphy, 2010: 3). 이러한 점에서 커뮤니티 웰빙은 단순히 개인 웰빙의 합이 아니라 집합적 특성이 있는 그 어떤 것까지 담고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커뮤니티 웰빙은 복잡성을 지닌 만큼 학자별로 다양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Lee & Kim(2015)은 선행연구가 제시한 커뮤니티 웰빙 개념을 분석수준(개인/집합)과 분석범위(전체/부분)의 기준으로 구분하여 ① 집합·전체, ② 집합·부분, ③ 개인·부분, ④ 개인·전체라는 4가지 개념 유형을 제시하였다.¹⁾ 첫 번째 유형은 커뮤니티 수준에서 사회·문화·경제·정치 등 웰빙의 다차원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Cox et al.(2010: 72)이 커뮤니티 웰빙을 “특정 커뮤니티, 인구 집단 또는 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경제, 사회, 환경,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 및 우선순위”라고 정의한 것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둘째, 커뮤니티 웰빙을 커뮤니티 수준에서 웰빙의 일부 영역으로 정의한 유형으로, 교육·노동력·소득·주거 등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웰빙을 커뮤니티 웰빙으로 본 것이 이에 해당한다(McHardy & O’Sullivan, 2004; O’Sullivan & McHardy, 2008). 세 번째는 개인 수준에서 웰빙의 다차원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웰빙을 정의한 유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커뮤니티 웰빙은 “거주지에 대한 애착, 사회·물리적 환경, 서비스·시설을 고려한 지역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Forjaz et al., 2011: 734), “커뮤니티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된 물리적,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심리적 환경”(Prilleltensky & Prilleltensky, 2007)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유형은 커뮤니티 웰빙을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 웰빙의 합이 곧 커뮤니티 웰빙이라고 본다.

그런데 커뮤니티는 물리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치·문화·심리적 장소라는 다차원성을 지니고, 커뮤니티가 직면하는 문제의 다양성에 기초할 때 커뮤니티 웰빙은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Christakopoulou et al., 2001).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첫째 유형과 넷째 유형을 결합한, 즉 개인 수준과 커뮤니티 수준에서 웰빙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커뮤니티 웰빙은 “개인과 커뮤니티가 번영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정치적 조건들의 합”(Wiseman & Brasher, 2008: 358), “시민과 공동체의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물리적, 재정적, 사회적, 인적 자본”(Cuthill, 2002), “인간의 욕구가 충족되고, 개인과 집단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미 있게 행동할 수 있으며, 자신 삶의 방식을 만족하는 곳에서 타인 및 자연환경과 함께하는 상태”(Armitage et al., 2012) 등으로 정의된다.

1) 커뮤니티 웰빙을 개인 수준에서 웰빙의 특정 영역으로 정의한 ‘개인·부분’ 유형은 대개 커뮤니티 웰빙이 아닌 ‘삶의 질’로 명명되며, 주로 사회경제적 영역의 웰빙에 초점을 두고 있다(Lee & Kim, 2015: 12).

종합하면 커뮤니티 웰빙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동체 영역 내·외부 조건의 합”으로(서재호 외, 2012: 43), “개인과 지역사회의 번영과 잠재력 성취를 위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정치적 조건들의 적절한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승중 외, 2013: 317).

2) 구성요소

커뮤니티 웰빙은 개인과 커뮤니티가 번영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조건으로 (McCrea et al., 2014), 그 구성요소는 개인 및 사회와 관련된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 커뮤니티 웰빙의 구성요소를 제시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Markovich et al.(2018)은 캐나다의 커뮤니티 웰빙을 사회, 환경, 경제, 문화, 정치의 5가지 영역과 18개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VanderWeele(2019)는 커뮤니티 웰빙의 측정지표를 ① 개인의 번영 ② 관계, ③ 리더십의 3가지 영역과 6개의 하위지표로 구성하였다. Christakopoulou et al.(2001)은 커뮤니티 웰빙을 ① 주거지(주거환경 만족, 안전), ② 사회 커뮤니티(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 정신), ③ 경제 커뮤니티(가계소득·소비), ④ 정치 커뮤니티(정치참여), ⑤ 사적공간(지역에 대한 감정), ⑥ 도시 일 부라는 6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Miles et al.(2008)은 호주 Queensland의 커뮤니티 웰빙을 살펴보기 위해 ① 부와 경제성, ② 안전과 공중보건, ③ 개인 건강, ④ 다양성과 학습, ⑤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⑥ 환경과 사회기반시설이라는 6가지 영역과 영역별 6개의 하위세부지표로 구성된 ‘six by six’ 커뮤니티 웰빙 모형을 제시하였고, Forjaz et al.(2011)은 노인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① 커뮤니티 서비스(가족지지, 사회서비스, 여가, 보건서비스), ② 지역 애착(안전, 소속감, 대인 신뢰), ③ 물리적·사회적 환경(사회 조건, 경제환경, 환경)의 3가지로 제시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웰빙 지표로 캐나다의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은 ① 커뮤니티 활력, ② 민주적 참여, ③ 교육, ④ 환경, ⑤ 건강인구, ⑥ 여가와 문화, ⑦ 생활 수준, ⑧ 시간 사용이라는 8개 지표와 8개 하위영역의 총 64개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 Sydney의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는 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②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③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커뮤니티, ④ 역동적이고 회복성 있는 지역경제를 구성요소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유사하게 호주 Victoria의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CIV)는 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인 커뮤니티, ② 역동적이고 회복성 있는 지역경제, ③ 지속가능한 건축 및 자연환경, ④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커뮤니티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Cox et al., 2010). 선행연구가 제시한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종합하면, 그 구성요소는 경제, 보건, 교육, 환경, 정치, 문화 등으로 요약된다.

〈표 1〉 커뮤니티 웰빙 지표

구분	영역	하위영역	측정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커뮤니티 활력	사회적 관계(사회참여, 사회적 지지, 커뮤니티 안전), 사회적 규범과 가치(타인과 커뮤니티에 대한 태도)	객관
	민주적 참여	참여, 의사소통, 리더십	
	교육	사회·감정적 역량, 기초교육지식·기술, 전반적 학업성취·성과·참여	
	환경	대기, 에너지, 수질, 재생불가능 물질, 생물 자원	
	건강인구	개인 웰빙, 신체적 건강상태, 기대여명, 정신건강, 기능건강, 생활양식, 공중보건, 보건의료	
	여가와 문화	여가생활 참여, 인식, 경험, 기회	
	생활 수준	중위·평균 소득과 부, 소득과 부의 배분, 소득변동성, 경제적 안정	
	시간 사용	근로·여가·통근 시간, 정기적·탄력 근무시간, 수면시간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City of Sydney)	건강·안전하며 포용적인 커뮤니티	개인 건강 및 웰빙, 건강상태, 건강위험 요소, 스포츠·여가, 공중의료, 교육서비스, 교육 성과, 개인 안전, 주택 구매력, 소득 및 상대적 불평등도, 커뮤니티 유대감	객관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예술·문화 참여, 예술·문화 인식, 창조산업 성장, 문화적 다양성	
	민주·참여적 커뮤니티	커뮤니티 참여, 시민성, 선거·대표성, 민주주의	
	역동적이고 회복성 있는 지역경제	경제적 번영 및 경쟁력, 경제적 다양성, 주민 고용 및 교육, 노동기술 및 생산성, 관광, 부동산 개발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건강·안전하며 포용적인 커뮤니티	개인 건강 및 웰빙, 커뮤니티 유대감, 유아기 건강, 개인 및 커뮤니티 안전, 평생교육, 서비스 이용가능성	객관
	역동적이고 회복성 있는 지역경제	경제 활동, 고용, 소득 및 부, 기술, 일과 삶의 균형	
	지속가능한 건축 및 자연환경	녹지, 주택구매력, 교통접근성,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대기 질, 수질, 생물학적 다양성, 폐기물 관리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기찬 커뮤니티	예술·문화 활동, 스포츠·여가 활동, 문화적 다양성	
	민주·참여적 커뮤니티	시민참여	
Markovich et al.(2018)	사회	포용력, 지원체계, 사회화	객관·주관
	환경	도시미관, 자연, 이동성, 회복력	
	경제	구매력, 커뮤니티 완전성, 생활주기 가치, 지역경제	
	문화	문화적 역동성, 소속감, 놀이, 교육	
	정치	주인의식, 협력, 통합	
Christakopoulou et al.(2001)	주거지	주거·환경 만족	주관
	사회커뮤니티	공동체 네트워크(비공식적 교류), 공동체 정신	
	경제커뮤니티	소득충분성	
	정치커뮤니티	정치(의사결정과정) 참여	

	사적 공간	지역 애착	
	도시의 일부	-	
Miles et al.(2008)	부와 경제성	평균주거비용, 주거이용 가능성, 주거가격추세, 개인소득, 경제적 곤란, 소득 지원	객관·주관
	안전과 공중보건	공중보건 서비스, 대인범죄, 기타위법행위, 빈곤범죄, 안전·범죄 인식, 범죄피해자	
	개인 건강	성인 과체중, 성인 신체활동, 주류소비,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다양성과 학습	연령분포, 교육수준, 인구밀도, 인구 성장, 지역문화예술활동, 다양성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시민참여, 커뮤니티 거버넌스, 커뮤니티 유대감, 사적 유대감, 커뮤니티 신뢰, 커뮤니티 참여	
	환경과 사회기반시설	녹지공원, 커뮤니티 여가, 도로 및 사회기반시설, 지역개발, 환경 이슈, 교통	

2. 커뮤니티 웰빙 모형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가 제시한 커뮤니티 웰빙 지표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구성영역 측면에서 기존 지표는 커뮤니티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아우르지 못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웰빙을 위한 정부 역할이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기존 모형은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커뮤니티 웰빙 증진의 핵심 주체는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는 자원 사용에 막대한 통제권을 가지고(Lee & Kim, 2016)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는 정부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둘째, 측정 측면에서 기존 지표는 주로 객관적 측정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부 지표는 객관적 측정을 중심으로 하되 주관적 측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개념 측면에서 기존의 커뮤니티 웰빙 지표는 자원(asset)과 자본(capital)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자본개념만 활용하거나(Beeton, 2006), 자원과 자본개념을 혼용하고 있다(McCrea et al., 2016; Maybery et al., 2009).²⁾ 본 연구의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기존 지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다차원적인 영역을 구성요소에 포함하였으며, 커뮤니티

2) 커뮤니티는 자원과 사건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La Placa et al., 2013)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접근방식(asset-based approach)을 취한다(Kim & Ludwings, 2017; Sung & Phillips, 2016). 자원은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동원이 가능하나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Kretzmann & McKnight, 1993; OECD, 2005: 3), 자본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내재된 자원”을 말한다(Berkes & Folke, 1998: 6). 여기서 자본은 자원에 대한 투자로, 투자에 따라 커뮤니티에 커다란 수익을 가져온다는 의미에서 2차 자원이라고도 한다(Green & Haines, 2015). 한편, 자원과 자본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원은 비축(stock)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태적이지만(Burnell, 2013), 자본은 대부분 집합적 행동을 요구하는 공공재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동태적(Green & Haines, 2015)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웰빙을 객관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 아닌 간주관적(intersubjective)으로 측정하고,³⁾ 자원과 자본의 두 개념을 구분하여 커뮤니티 웰빙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기존연구가 제시한 모형과 구별된다.

본 연구의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Kee et al.(2015)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상위영역인 3개의 자원과 하위영역인 6개의 자본이 연계되는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커뮤니티 웰빙 모형의 상위영역인 자원은 인적 자원(human asset), 자연 자원(natural asset), 사회적 자원(social asset)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각 자원은 하위영역인 자본으로 나누어지며, 인적 자원은 인간개발자본(human development capital), 경제자본(economic capital)으로, 자연 자원은 환경자본(environmental capital), 인프라 자본(infra-capital)으로, 사회적 자원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거버넌스자본(governance capital)으로 구성된다. 각 자본의 세부 지표 및 측정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2> 커뮤니티 웰빙 모형 지표

최상위 영역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측정항목
커뮤니티 웰빙	인적 자원	인간개발 자본	교육	공공도서관 서비스
				평생교육 서비스
				초중등 교육환경
		복지	보건	의료서비스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경제자본	고용	지역경제	(지역 내) 일자리 수준
				(지역 내) 실업자 지원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생활물가 수준	
자연 자원	환경자본	환경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	
			대기의 질	
			공원/녹지 공간	
	하천/호수/바다의 수질			
인프라자본	주거	거주여건		

3) 간주관성은 복수의 개인 간 공유된 인식과 사고를 의미한다(Lee & Kim, 2016).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간주관적인 측정은 '지역에 대한 주민의 공유된 평가'로 이루어지는데, '평가'라는 점에서 주관적이지만, 자신과 결부되지 않고 커뮤니티에 대한 구성원 전체의 평가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는 객관적이다(Choi et al., 2020). 따라서 간주관적 측정(지표)은 웰빙의 주관적 특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객관적 지표의 단점과 웰빙의 객관적 상황을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 지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Choi et al., 2020).

				상하수도			
				ICT	정보통신서비스		
				교통시스템	대중교통		
					도로 유지 및 보수		
				안전	재난/안전대비 수준		
					치안 및 경찰 서비스		
				사회적 자원	사회자본	지역사회 유대관계	단체활동 참여
							지역사회 유대
							이웃과의 소통 및 교류
						시민의식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시민의식
							공동체 이익 존중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	
						시청/군청/구청에 대한 신뢰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문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여가생활 수준						
	전통문화가치의 계승						
거버넌스자본	거버넌스	시청/군청/구청의 시정(군정, 구정) 품질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					
		공무원의 행정 능력					

본 연구가 다루는 커뮤니티 웰빙 모형의 특징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웰빙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개념으로(McCrea et al., 2014),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커뮤니티라는 중범위 수준에서 웰빙을 측정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커뮤니티를 단위로 웰빙 지표를 발표하고 있으나, 사회지표에 관한 움직임은 대부분 국가 수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와 Human Development Index,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와 같은 대부분의 웰빙 지표는 국가를 측정 단위로 하고 있다(Kim & Ludwigs, 201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중범위 수준에서 커뮤니티 웰빙 수준을 파악한다. 또한 커뮤니티 웰빙을 측정한 기존연구가 주로 개인의 주관적 행복이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커뮤니티 웰빙을 측정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의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커뮤니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웰빙을 파악한다(Kim & Ludwigs, 2017).

둘째,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커뮤니티 웰빙 변화를 모니터하고, 정책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Dolan et al., 2011).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일종의 지표 역할을 하는데, 지표는 현재 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McHardy & O'Sullivan, 2004). 즉,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웰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형성 방향을 제시하여(이승중 외, 2013; Murphy, 2010; Cox et al., 2010) 정부가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Miles et al., 2008). 이와 더불어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정부가 커뮤니티의 강점과 약점을 명백히 파악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Christakopoulou et al., 2001). 더 나아가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현재의 커뮤니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커뮤니티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Sung & Phillips, 2018), 사회·환경·경제 등 다차원적으로 커뮤니티 웰빙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Murphy, 2010; Cox et al., 2010).

3. 커뮤니티 웰빙 인식유형 분석의 필요성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연역적으로 형성된 이론모형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최근에는 커뮤니티 웰빙 모형 및 지표 확립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의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 웰빙 측정, 커뮤니티 웰빙 유형화 등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첫째, 커뮤니티 웰빙의 유형 탐색 측면에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인식유형을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 커뮤니티 웰빙 유형을 도출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서인석 외, 2016; 이승중 외, 2020), 이들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한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커뮤니티 웰빙 모형의 측정지표인 변수를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것으로, 연구대상자의 관점에 초점을 두어 인식유형을 살펴본 본 연구와 분석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는 R 방법론⁴⁾과 Q 방법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R 방법론은 연구자가 정의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연구자 주도적'인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며, 객관적인 측정을 추구한다(김순은, 1999; Watts

4) R 방법론(R methodology)은 전통적인 경험주의 연구의 패러다임인 양적 연구방법을 통칭하는 것으로(Stainton Rogers, 1995; Watts & Stenner, 2005), 설문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상관계수(r)를 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r'을 대문자로 표기하여 'R 방법론'이라고 한다(Webler et al., 2009: 5). R 방법론과 대조되는 것이 Q 방법론이며(Cross, 2005), Q 방법론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R 방법론과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R' 보다 앞선 글자인 'Q'를 선택했다는 의견과 Q 방법론의 창시자 Stephenson이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quansal(QUANitification of SALiency) units" 라고 명명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Q'를 사용했다는 의견이 있다(Welber et al., 2009: 6).

& Stenner, 2005).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분류하는 R 방법론과 다르게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내도록 하여 그 유형을 탐색하는 '연구대상자 주도적'인 방법이다(김홍규, 2008: 130-131; Watts & Stenner, 2005). 즉, R 방법론은 응답자를 대상(subject)으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한 특성, 자극, 설문 문항 등을 변수(variable)로 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반면, Q 방법론은 사람을 변수(variable)로 하여 이들이 분류한 Q 진술문을 분석 대상(subject)으로 삼아 요인분석을 함으로써 연구대상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밝혀낸다(Watts & Stenner, 2005; 김홍규, 2008: 79; Webler et al., 2009). 연구자의 시각에서 설명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는 R 방법론과 달리 Q 방법론은 사람 내 혹은 사람 간 상관관계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두 방법론은 차이가 있다(Barry & Proops, 1999; 김순은, 2010).

기존의 커뮤니티 웰빙 유형화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R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기반으로 만든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군집 분석 방법 등으로 커뮤니티 웰빙 유형을 탐색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제시한 설문 항목에 대해 동일한 응답을 한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본다. 따라서 커뮤니티 웰빙 유형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변수로 삼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의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실증연구 방법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커뮤니티 웰빙 연구는 이론적 개념인 커뮤니티 웰빙 모형을 실증하고자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왔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웰빙 구성요인의 타당성 및 구성요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차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이용하였고(김태훈 외, 2014; 서인석 외, 2014; 서인석·이승중, 2017a, 2017b; 오영균, 2017 등), 커뮤니티 웰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커뮤니티 웰빙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단계적회귀분석(이미애·이승중, 2016), 로지스틱 분석(이준영·최낙혁, 2018), 질적비교방법(Maggino et al., 2018; 최영출·기영화, 2017), 인과지도방법(Choi & Jang, 2017) 등을 사용하였다. 커뮤니티웰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하였으며(서인석·이승중, 2016), 커뮤니티웰빙의 지역 간 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ANOVA 분석이 수행되었다(기영화·정서린, 2018; 기영화 외, 2015). 한편, 커뮤니티 웰빙 구성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 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이승중 외, 2013; Kim et al., 2015). AHP 기법은 대상에 대해 상대적인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Q 방법론과 유사하지만, Q 방법론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⁵⁾ 대신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관점에서 가치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Watts &

5)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은 상충하거나 다중적인 목표(대안)가 있는 경우 활용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의사결정 요소의 계층화, 요인 간 비교 등을 통해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한다(문광민 외, 2018; 임동완 외, 2020).

Stenner, 2005) 인식유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AHP 기법과 구별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다루지 않은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 실증연구 방법의 공백을 메우고 분석 방법의 다각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1. Q 방법론의 개념과 특성

Q 방법론은 1935년 영국의 물리·심리학자 William Stephenson이 창시한 방법론으로 요인분석을 통해 인간의 주관성을 파악하는 분석기법이다(Brown, 1996). 이는 응답자가 어떠한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주관적 관점을 스스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인식유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Watts & Stenner, 2005).

전통적인 R 방법론은 확률이론에 기초해 가설을 설정하고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추구한다(Watts & Stenner, 2005). 그런데 행태주의로 대표되는 이와 같은 방법론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후기 행태주의·현상학 등이 등장하면서 Q 방법론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김순은, 2007). Q 방법론은 외부 연구자가 제시한 기준(external metrics)으로부터 자극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자아지시성(self-reference)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연구대상자의 태도, 의견, 생각, 감정과 같은 주관성에 접근하도록 한다(McKeown & Thomas, 2013). 따라서 Q 방법론은 연구자의 시각이 아닌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출발하며(김흥규, 1992), 연구대상자는 상이한 항목에 대해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Q sorting)을 통해 스스로 주관성을 드러내도록 한다(Brown, 1980).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하여 연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나타낸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주관적 인식구조를 지닌 집단을 도출한다(김순은, 1999).

Q 방법론은 연구대상자의 자기결정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파악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인식을 추출함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김순은, 2010). 따라서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에 대해 인식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Q 방법론의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주제에 대한 Q 진술문(Q statement)을 작성한 후 연구대상자(P sample)를 선정하여 이들이 Q 분류(Q sorting)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류한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하며, 도출한 요인을 해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김순은, 2007).

1) Q 표본(Q sample)의 선정

Q 표본은 연구대상자가 분류할 “이질적인 항목(heterogeneous items)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Q 표본으로 사진, 그림, 카드 등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상이한 주장을 담은 Q 진술문(Q Statement)이 사용된다(Watts & Stenner, 2005: 74; 김순은, 2010). 본 연구는 Q 표본으로 Q 진술문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Q 진술문의 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연구주제 및 특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0~50개가 사용된다(김순은, 2007: 38).

Q 진술문은 진술문의 출처에 따라 구술형과 추출형으로 나뉘고, 연구 설계 방법에 따라 구조형과 비구조형으로 구분된다(김순은, 2007). 구술형은 연구대상자와 인터뷰를 통해 진술문을 작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추출형은 문헌이나 신문기사 등을 활용한 방법을 의미한다. 구조형과 비구조형의 경우 전자는 이론 구축 또는 이론의 검증을 목적으로 피서식 실험 설계 원리에 따라 이론이나 가설에 기초하여 진술문을 작성하고(Brown, 1993; 김홍규, 2008), 후자는 별도의 연구 설계 없이 자유롭게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문장으로 Q 진술문을 구성한다(김순은, 1999). 대체로 비구조적 진술문을 작성하는 경우 구술형·추출형이 사용되고, 구조적 진술문을 작성할 때는 주로 추출형이 활용된다(김순은, 2007).

Q 진술문은 인터뷰, 신문기사 및 사설, 문헌 조사 등 다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⁶⁾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 이론모형에 근거한 구조적인 방법으로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구조화된 방식은 이론이나 가설의 특정 변수에 따라 진술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설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때 사용한다(김홍규, 2008). 구조적 방식은 Q 진술문을 작성하는데 이상적인 형식이며(김순은, 2007), 이론과 선행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Q 진술문을 작성하고 분석함으로써 연역적 이론을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박광국 외, 2001; 김순은, 2007).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확립된 모형인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웰빙의

6) 비구조화된 Q 표본은 “연구자가 어떠한 이론적인 시각을 가정할 수 없을 때 사용”되며(김홍규, 2008: 88-89), 이 경우 대개 인터뷰, 신문 사설 등을 활용하여 Q 진술문을 구성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진술문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측정지표를 기반으로 Q 진술문을 구성하는 구조적 방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 2>에서 제시한 커뮤니티 웰빙 모형 지표에 기초하여 Q 진술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커뮤니티 웰빙 지표를 제시한 선행연구와 관련 이론, 커뮤니티 웰빙 국제지표 등을 검토하여 확립한 것이다. 커뮤니티 웰빙 모형은 커뮤니티 웰빙을 거시적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모형은 인간개발자본(보건, 복지, 교육), 경제자본(고용, 지역경제), 환경자본(환경), 인프라자본(주거, ICT, 교통시스템, 안전), 거버넌스자본(거버넌스), 사회자본(지역사회 유대관계, 시민의식, 신뢰, 문화)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 모형 지표의 개별 측정항목을 Q 진술문으로 구성하였으며, 34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한편, 진술문은 주관적 성격을 지니고, 관련 주제 영역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며, 간단하고 명백하게 기술되어 참여자가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Watts & Stenner, 2005; 김순은, 2007). 본 연구도 진술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간결하게 구성함으로써 연구대상자가 내용을 쉽게 파악한 후 Q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Q 진술문

CWB 영역	세부 지표	Q 진술문	
인적 자원	인간개발 자본	교육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중요하다. -평생교육(예: 지역 내 대학,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환경(학교 및 시설 교육기관 포함)이 중요하다.
		보건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복지	-노인 서비스가 중요하다. -장애인 서비스가 중요하다. -보육 서비스가 중요하다.
	경제자본	고용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다. -지역 내 실업자 지원이 중요하다.
		지역경제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지역의 생활물가 수준이 중요하다.
	자연 자원	환경자본	환경
인프라 자본		주거	-거주여건이 중요하다. -상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
		ICT	-정보통신 서비스가 중요하다.
		교통시스템	-대중교통 시스템이 중요하다. -도로 유지 및 보수가 중요하다.
		안전	-재난 및 안전대비 수준이 중요하다.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
사회적 자원		사회자본	지역사회 유대관계

	시민의식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예: 지역문제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 시위, 청원 등)가 중요하다. -시민의식(준법의식, 도덕의식,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존중 등)이 중요하다. -공동체 이익 존중이 중요하다.
	신뢰	-이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문화	-문화시설 프로그램(예: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수준 등) 제공이 중요하다. -여가생활 수준이 중요하다.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
거버넌스 자본	거버넌스	-시청/군청/구청의 시정(군정, 구정) 품질이 중요하다.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예: 친절, 신속, 쉬운 설명 등)가 중요하다. -공무원의 행정 능력이 중요하다.

2) P 표본(P sample)의 선정

P 표본은 Q 분류를 수행하는 연구대상자를 의미한다. P 표본 규모는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에 따라 요인을 도출하고 요인 간 비교가 가능한 수준이면 충분하며 많은 수의 연구대상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Watts & Stener, 2005: 79; 김흥규, 2008: 113). Q 방법론은 R 방법론과 같이 현상에 대한 사람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안에서 의미의 중요성”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이다(김흥규, 2008: 115).⁷⁾

P 표본 구성을 위해 Thompson(1966)의 스키마타(Thompson Schemata)를 사용할 수 있는데, ① 연구주제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special interest), ② 공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사람(dispassionate judge), ③ 권위자 혹은 전문가(authorities, expert), ④ 일반적인 관심을 지닌 사람(class interest), ⑤ 정보나 흥미가 없는 사람(uninformed, uninterested)을 기준으로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집함으로써 연구자는 어떠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잘 평가할 수 있다(김흥규, 2008: 115-116).

본 연구는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P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도와 시각이 상이한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을 분석하는 Q 연구에 유용하다(김흥규, 2008). P 표본은 커뮤니티 웰빙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묻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⁸⁾ P 표본은 ① 공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dispassionate judge) 커뮤니티

7) Q 연구는 P 표본 수를 기준으로 1인의 연구대상자에게 다른 상황을 부여하여 이들 간 관계를 분석하는 심층적 연구(intensive study)와 30~50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연구(extensive study)로 분류된다(김순은, 1999).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도로 복잡하고, 경쟁적인 개념과 주제를 다수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 연구가 수행된다(Watts & Stenner, 2005).

8) P 표본은 무작위 표본 추출법에 따라 선정할 필요는 없으며(심미영 외, 2012), 본 연구는 톰슨의 스키마타에 따라 P 표본을 선정하였다. 2019년 6월 서울시 모 대학에서 개최한 포럼 참석자 중 스키마타를 충족한 사람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의사 여부를 묻은 후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에 한정하여 P 표본을 구성하였다.

니티 웰빙에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13명), ② 연구주제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권위자 또는 전문가(special interest, authorities, expert)라고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웰빙 연구자(4명), ③ 일반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class interest)인 회사원과 학생(13명), ④ 정보가 없거나 취약한(uninformed, uninterested) 주부와 노인(4명)의 34명으로 구성하였다.

3) Q 분류 및 분포

Q 분류(Q sorting)는 주어진 진술문에 대해 응답자가 매우 동의부터 매우 반대까지 순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Q 소트(Q sort)는 Q 분류의 결과를 지칭한다(김홍규, 1992). Q 분류는 연구대상자에게 Q 진술문을 강제로 배분하게 하는 강제분포 방식과 연구대상자가 자유롭게 Q 진술문을 분류하는 자유분포 방식이 있다(Brown, 1980: 17). 본 연구는 Q 소트가 정규분포의 형태를 나타내도록 <그림 1>과 같이 -4부터 +4까지 각 척도에 할당되는 Q 진술문의 수를 제한하는 강제분포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상단의 각 숫자는 긍정, 중립, 부정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4는 가장 반대, -3은 그다음 반대, 0은 중립, +4는 가장 동의, +3은 그다음 동의를 의미한다.

Q 분류는 2019년 6월 21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11일간 실시되었다. P 표본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분류 방법을 설명한 후 분류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서 Q 분류를 진행하였다. 사전에 Q 표본으로 선정한 진술문을 담은 3.5cm×3.5cm 크기의 34개 카드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가 분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류 방법, 예시 등을 담은 안내문을 추가로 제공하였다.

Q 분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우선 응답자에게 전체 진술문 카드를 읽도록 하여 진술문의 내용과 성격을 숙지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응답지에 있는 각 숫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 열에 배치되는 진술문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이후 진술문이 담긴 카드를 동의(+), 중립(0), 반대(-)의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오른쪽에 찬성의 진술문을, 가운데에는 중립적인 진술문을, 왼쪽에는 반대의 진술문을 배치하도록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가 긍정의 진술문을 가장 동의(+4) 및 동의(+3) 순으로 분류하고, 부정의 진술문을 가장 반대(-4), 반대(-3)의 순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중립에 대한 진술문이 최종적으로 배열되도록 하였다. 즉, 동의와 반대의 양극단에서부터 카드를 분류하여 중립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Q 분류를 완료한 후에도 응답자가 원하는 만큼 카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Q 분류 시간은 응답자 1인당 평균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 1〉 Q 분류표

(가장 반대)	- 4	- 3	- 2	- 1	0	+1	+2	+3	(가장 동의)
(2개)									(2개)
	(3개)							(3개)	
		(4개)					(4개)		
			(5개)			(5개)			
				(6개)					

IV. 분석 결과

1. 자료의 분석

1)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34명의 P 표본이 34개의 Q 진술문에 대해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PQMethod 2.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principle component) 분석 방법으로 하였으며,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요인 수를 입력한 후 설명력,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이라고 판단한 3개의 요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회전을 하여 각 요인의 특성이 극대화되도록 하였다. 선정된 요인은 커뮤니티 웰빙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으로(김순은, 2007: 100), 요인 간 상관관계는 아래 〈표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요인 1과 요인 2의 상관계수가 0.8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 간 상관관계는 모두 0.5 이하로 나타났다.⁹⁾

9) R 방법론(Regular factor analysis)과 달리 Q 방법론에서의 요인 간 상관관계 계수는 각 요인 사이에 완전한 독립성을 상정하지 않으므로 상관계수 크기에 의존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요인 추출방법에 대한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김홍규, 2008: 211; 이은남 외, 2006: 1245).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1	1		
요인 2	0.8579	1	
요인 3	0.4880	0.4008	1

2) 요인분석표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3개 요인을 기준으로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인식유형을 구분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¹⁰⁾ 커뮤니티 웰빙 인식에 관한 첫 번째 요인(유형 1)은 34명의 P 표본 중 18명이 속하였고, 두 번째 요인(유형 2)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번째 요인(유형 3)에는 총 3명이 속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어느 유형에도 분류되지 않았다.¹¹⁾ 세 유형은 전체 변량의 62%를 설명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웰빙에 대해 유사한 인식을 지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유형은 30%, 22%, 10%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응답자의 요인분석표

응답자	요인	유형 1	유형 2	유형 3	배경변수		
					성별	연령	직업
1		-0.0334	0.7687*	0.1509	남성	30대	공무원
2		0.6086*	0.1943	0.3018	남성	30대	공무원
3		0.6677*	0.4237	0.1881	여성	30대	공무원
4		0.3036	0.5534*	-0.1195	여성	30대	공무원
5		0.6117*	0.4888	0.2982	여성	30대	공무원
6		0.5987*	0.5811	0.0150	여성	30대	공무원
7		0.5774*	0.1656	0.4742	남성	30대	전문가
8		0.3293	0.6980*	0.2681	남성	40대	공무원
9		0.4116	0.6252*	0.2013	남성	40대	공무원
10		0.6887*	0.3197	0.1924	여성	40대	공무원
11		0.5373*	0.2470	0.1860	여성	40대	공무원
12		0.2426	0.6680*	0.3272	여성	40대	공무원
13		0.5855*	0.0961	0.0090	여성	30대	주부
14		0.5341	0.5412	-0.3893	남성	30대	회사원

10)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는 Q 요인을 해석하는데 참고사항일 뿐이며,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는 주관성의 구조와 연관성이 없다(김순은, 2010: 17; 김홍규, 2008: 232).

11) 한 요인에 포함되는 사람이 3~4명 이상이라면 요인을 해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김홍규, 2008: 117).

15	0.7055*	0.3367	0.4342	여성	30대	회사원
16	0.3232	0.6140*	0.3605	남성	20대	학생
17	0.3860	0.2314	0.6558*	여성	30대	전문가
18	-0.2327	0.4669	0.4080	여성	40대	전문가
19	0.5473	0.5397	0.2218	남성	20대	학생
20	0.7795*	0.0953	0.2669	남성	30대	공무원
21	0.1791	0.7794*	0.1917	남성	40대	공무원
22	0.7756*	0.1669	0.0876	남성	70대	은퇴자
23	0.7935*	0.0821	0.0702	여성	70대	주부
24	0.2797	0.6187*	0.0744	여성	40대	주부
25	0.2747	0.7346*	0.0120	남성	40대	회사원
26	0.7088*	0.3638	-0.0502	남성	20대	회사원
27	0.7970*	0.2892	0.1867	남성	30대	학생
28	0.3031	0.0470	0.7189*	여성	30대	학생
29	0.6364*	0.4933	0.1446	남성	20대	학생
30	0.6989*	0.6275	0.0001	여성	20대	회사원
31	0.7642*	0.1746	0.3568	남성	20대	학생
32	0.4260	0.4456*	-0.0188	남성	20대	학생
33	0.7263*	0.3857	0.0105	여성	20대	회사원
34	0.0587	0.1344	0.7790*	여성	30대	전문가
eigen value	16.0147	2.6552	2.2885			
설명력	30%	22%	10%			

주: * $p < 0.05$

2. 자료의 해석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3가지 인식유형은 그 특성을 바탕으로 제1유형은 인프라자본 지향형, 제2유형은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제3유형은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인식유형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진술문에 기초하였는데 이는 진술문이 요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료이기 때문이다(김순은, 2007: 60). 각 유형의 특성은 Q 진술문의 양 극단 값을 기초로 특성을 분석하기 때문에(김순은, 2007), 본 연구는 응답자가 양극단에 배열한 진술문의 요인(-4, -3, 3, 4)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¹²⁾

12) 요인(factor Q-sort values)은 연구대상자가 가장 긍정과 가장 부정의 범주 사이에 부여한 수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분류 범주를 가장 긍정(+4)에서부터 가장 부정(-4)까지로 하였으므로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요인가는 -4, -3, -2, -1, 0, 1, 2, 3, 4의 값이 된다. 만약 +5와 -5까지 분류하였다면 -5, -4, -3, -2, -1, 0, 1, 2, 3, 4, 5의 수치가 요인가가 된다. 요인가는 한 요인에 의해 설명된 총분산량을 의미하는 고유치(eigen value)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표 6〉 Q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유형 1	유형 2	유형 3
1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3	4	0
2	노인 서비스가 중요하다.	-1	-1	-2
3	장애인 서비스가 중요하다.	-1	-3	-1
4	보육 서비스가 중요하다.	1	1	1
5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중요하다.	-1	0	-3
6	평생교육(예: 지역 내 대학,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중요하다.	-2	-1	-4
7	초중등 교육환경(학교 및 사설교육 기관포함)이 중요하다.	1	4	1
8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다.	0	3	-3
9	지역 내 실업자 지원이 중요하다.	-1	-3	-3
10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1	3	-2
11	지역의 생활물가 수준이 중요하다.	1	0	-1
12	재활용 및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중요하다.	1	-1	-1
13	대기의 질(미세먼지, 황사 등)이 중요하다.	2	1	3
14	공원, 녹지 공간이 중요하다.	2	2	4
15	하천, 호수, 바다의 수질이 중요하다.	0	-1	0
16	상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	3	-2	0
17	도로 유지 및 보수가 중요하다.	0	-3	0
18	거주여건이 중요하다.	4	2	3
19	정보통신 서비스가 중요하다.	0	-2	-1
20	대중교통 시스템이 중요하다.	3	3	1
21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	4	2	3
22	재난 및 안전대비 수준이 중요하다.	2	0	2
23	시청/군청/구청의 시정(군정, 구정) 품질이 중요하다.	-2	0	2
24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예: 친절, 신속, 쉬운 설명 등)가 중요하다.	-2	-1	-2
25	공무원의 행정 능력이 중요하다.	-3	-2	1
26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3	0	1
27	시민의식(준법의식, 도덕의식,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존중 등)이 중요하다.	2	2	4
28	이웃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1	1	0
29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4	-4	-2
30	문화시설 프로그램(예: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주민자치센터 및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수준 등) 제공이 중요하다.	0	1	-1
31	여가생활 수준이 중요하다.	0	0	2
32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	-4	-4	-4
3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지역문제에 관한 공청회, 토론회, 시위, 청원 등)가 중요하다.	-3	1	0
34	공동체의 이익 존중이 중요하다.	-2	-2	2

1) 유형 1: 인프라자본 지향형

유형 1은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인프라자본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 1을 구성하는 응답자들은 거주여건 및 안전, 상하수도 시설,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진술문 18, 21, 16 등). ‘인프라자본 지향형’의 응답자들은 인프라자본과 관련된 “거주여건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18과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21에 +4를 부여해 이 유형은 주거여건 및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프라자본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시설,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간개발자본 요인인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진술문에 동의하였다(진술문 1, 진술문 16, 진술문 20).

〈표 7〉 유형 1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가
18	거주여건이 중요하다.	4
21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	4
1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3
16	상하수도 시설이 중요하다.	3
20	대중교통 시스템이 중요하다.	3
25	공무원의 행정 능력이 중요하다.	-3
26	지역사회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3
33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지역문제에 관한 공청회, 토론, 시위, 청원 등)가 중요하다.	-3
29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4
32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	-4

한편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인프라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사회적 자원에 해당하는 거버넌스자본과 사회자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즉, 거버넌스, 지역사회 유대관계, 시민의식, 신뢰, 문화에 대한 진술문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신뢰 영역인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29와 문화 영역인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32에 -4를 부여해 ‘인프라자본 지향형’은 커뮤니티 웰빙의 영역 중 신뢰, 문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이들은 공무원의 행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3을 부여하여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았으며(진술문 25), 지역사회 유대관계 및 시민의식 영역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지역문제에 관한 공청회, 토론, 시위, 청원 등)가 중요하다는 진술문에도 동의하지 않았다(진술문 26, 진술문 33).

정리하면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인프라자본(거주여건, 안전, 상하수도 시설,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간개발자본(의료서비스)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반면에 사회적 자원인 거버넌스자본, 사회자본(지역사회 유대관계, 시민의식, 신뢰, 문화)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유형 2: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두 번째 관점인 유형 2는 인간개발자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들은 인간개발자본에 포함되는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어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이라 지칭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 웰빙 구성요인 중 인간개발자본에 해당하는 보건,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진술문 1,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의료서비스가 중요하고(진술문 1), 초·중·등 교육환경(학교 및 사설교육 기관포함)이 중요하다(진술문 7)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4를 부여하여 강한 동의를 나타내었다. 또한 고용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고(진술문 8),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진술문 10)는 의견에 +3을 부여하여 경제자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한편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신뢰, 문화 등의 가치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사회자본의 신뢰 영역인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29와 문화 영역인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32에 -4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의 응답자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복지와 교통시스템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서비스가 중요하고(진술문 3), 도로 유지 및 보수가 중요하다는 것(진술문 17)에 대해 낮은 점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의 사람들은 보건, 교육, 고용, 지역경제 등과 같이 인적자원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개발자본과 경제자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8〉 유형 2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가
1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	4
7	초중등 교육환경(학교 및 사설교육 기관포함)이 중요하다.	4
8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다.	3
10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	3
20	대중교통 시스템이 중요하다.	3
3	장애인 서비스가 중요하다.	-3
17	도로 유지 및 보수가 중요하다.	-3
9	지역 내 실업자 지원이 중요하다.	-3
29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4
32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	-4

3) 유형 3: 환경·사회자본 지향형

세 번째 관점인 유형 3은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관점은 응답자들이 커뮤니티 웰빙 영역 중 환경, 시민의식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교육, 고용과 같은 인적 자원에는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진술문 14, 27, 8, 9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사회자본인 시민의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환경자본 측면에서 대기의 질(미세먼지, 황사 등)이 중요하고(진술문 13), 공원, 녹지 공간이 중요하다(진술문 14)고 응답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 하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인프라자본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주거영역인 거주여건(진술문 18)과 안전영역인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진술문 21)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사회자본과 더불어 자연자원에 속하는 환경자본과 인프라자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인적자원에 속하는 인간개발자본과 경제자본에 관련된 요소들을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진술문 5, 6, 8, 9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유형의 응답자들은 인간개발자본의 교육영역인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5와 “평생교육(예: 지역 내 대학,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6에 각각 -3과 -4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경제자본의 고용영역인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8과 “지역 내 실업자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9에 -3을 부여했다. 또한 사회자본의 문화영역인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도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술문 32).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대기가 오염되어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쾌적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람들 간에 준법의식, 도덕의식,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존중과 같은 시민의식이 높지 않다면 잦은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웰빙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물리적·가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녹지 공간 및 대기의 질뿐만 아니라 정신적·비가시적인 시민의식과 같은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표 9〉 유형 3 진술문의 요인가

번호	Q 진술문	요인가
14	공원, 녹지 공간이 중요하다.	4
27	시민의식(준법의식, 도덕의식, 책임의식, 민주적 절차 존중 등)이 중요하다.	4
13	대기의 질(미세먼지, 황사 등)이 중요하다.	3
18	거주여건이 중요하다.	3
21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	3
5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중요하다.	-3
8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다.	-3
9	지역 내 실업자 지원이 중요하다.	-3
6	평생교육(예: 지역 내 대학,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 교육프로그램) 서비스가 중요하다.	-4
32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	-4

4)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세 가지 관점 비교

본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인프라자본 지향형’,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의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되었다. ‘인프라자본 지향형’은 주거환경, 안전, 상하수도시설, 교통시스템과 같이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보장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은 보건, 교육, 고용, 지역경제와 같은 요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며,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적 가치, 거주여건 및 안전에 대한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인프라자본 지향형’,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의 세 유형은 공통적으로 “전통문화가치의 계승(국보, 보물,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이 중요하다.”라는 진술에 매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술문 32). 유형 간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첫째 ‘인프라자본 지향형’과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은 두 유형 모두 인간개발자본인 의료서비스와 인프라자본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사회자본 영역인 정부 신뢰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인간개발자본 지향형’과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경제자본의 고용 영역에서 공통된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두 유형 모두 “지역 내 실업자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9에 -3을 부여하여 실업자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8에 대해서는 두 유형이 각각 3과 -3을 부여하여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즉,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의 사람들은 실업자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지역 내 일자리 수준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실업자 지원과 일자리 수준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

지 않았다. 셋째, ‘인프라자본 지향형’과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의 두 유형은 인프라자본의 주거영역과 안전영역에서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두 유형 모두 주거영역인 “거주여건이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18과 안전영역인 “치안 및 경찰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진술문 21에 각각 +4와 +3을 부여하여 거주여건과 안전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그간의 커뮤니티 웰빙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 모형 및 지표 개발, 커뮤니티 웰빙 측정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특히 이들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양적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인식 연구는 커뮤니티 웰빙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만(AHP) 수행되었을 뿐 주관적인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베이에 기초하여 수행되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의견, 가치 등을 발견하는데 유용한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인식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인식유형은 3가지로 도출되었으며, 각 유형을 ‘인프라자본 지향형’,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첫째, ‘인프라자본 지향형’은 거주여건, 안전,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과 같은 인프라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인프라 환경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요소로 이 유형은 커뮤니티 웰빙을 위해 인프라자본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자본 지향형’의 사람들은 사회적 자원인 거버넌스자본, 사회자본(지역사회 유대관계, 시민의식, 신뢰, 문화)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인프라자본 지향형’은 비가시적인 사람 간 유대관계, 문화, 시민의식보다는 물리적인 환경조성이 커뮤니티 웰빙에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은 보건, 교육, 고용, 지역경제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물리적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프라자본 지향형’과 달리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서비스, 경제 상황과 같은 무형의 환경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인간개발자본 지향형’은 정부 신뢰, 전통문화의 계승 등 심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장애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유형은 커뮤니티 웰빙에 있어 개인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와 경제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타인을 위한 영역이나 공공의 가치(장애인 서비스, 실업자 지원, 정부 신뢰, 전통문화가치의 계승)는 중요하지 않게 인식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쾌적한 대기 환경 및 공원·녹지공간, 거주여건, 치안 및 경

찰 서비스를 커뮤니티 웰빙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반면 이 유형은 사회자본의 문화영역인 전통문화가치의 계승, 인간개발자본의 교육, 경제자본의 고용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였다.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은 자연환경, 거주여건, 시민의식 등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나 간접적으로 커뮤니티 웰빙 여건을 조성하는 요인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웰빙의 유형에 근거하여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커뮤니티 웰빙의 주관적 인식유형에 기반하여 중요도가 높은 요인에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단기간에 가시적인 커뮤니티 웰빙 증진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웰빙 구성요소 중 인간개발자본, 인프라자본, 환경·사회자본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된 반면, 정부 신뢰나 전통문화가치의 계승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정책 수립을 하는데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각 유형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지방정부가 우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책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둘째,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유형별 접근을 통해 지방정부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개개인의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에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다르다. 이를 단시간에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형별 접근을 통해 대체적인 만족도는 제고할 수 있다. 특정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이 우선시 하는 행정서비스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해당 유형의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다. 유형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기 전에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행정 전반에 만족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별 접근은 커뮤니티 웰빙의 중요도를 분석하는 AHP 기법으로는 불가능하다. AHP 기법은 커뮤니티 웰빙의 개별 지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지만 Q 방법은 중요하게 인식하는 요인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주민 수요가 예상되는 정책을 패키지로 하여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 웰빙 제고를 위한 행정 전반을 거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정책의 패키지화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단계별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의 수행 결과 또한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별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주민은 특정 유형(패키지)에서 벗어나는 서비스를 선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거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개별 사안에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마지막 정책적 시사점은 Q 방법론을 활용한 측정이 경제적이란 면에 있다. 커뮤니티 웰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커뮤니티의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지

방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커뮤니티 웰빙 모형의 하위 영역은 곧 지방정부의 정책 영역을 의미하므로 지방정부는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Q 방법론 분석을 통해 정책 영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Q 방법론은 적은 수의 연구 참여자라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R 방법보다 경제적인 장점을 가진다(김순은, 1999). 따라서 지방정부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전통적인 서베이 방식보다는 Q 방법론을 채택하여 정책 입안 전 사전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동시에 Q 방법론은 설문조사가 가지는 단점, 즉 응답 간 상대적 중요도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34명의 P 표본을 바탕으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세 가지 인식유형을 도출하였다. '인프라자본 지향형', '인간개발자본 지향형', '환경·사회자본 지향형'으로 명명한 이 세 유형을 전체 커뮤니티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P 표본 규모를 조정하는 등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P 표본의 기준은 학자에 따라 12~20명(Webler et al., 2009), 40~60명(김흥규, 2008), 40~50명 내외(Stainton Rogers, 1995)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P 표본 기준은 경험 원칙(rule of thumb)으로, 정해진 P 표본 규모는 없으며 이는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르다(김흥규, 2008). Q 방법론은 자작적 주관성(operant subjectivity)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P 표본을 조정하여도 본 연구가 제시한 유형과 유사한 유형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다. 중요한 점은 Q 방법론을 통해 유형별로 주민들이 지향하는 분명한 정책 선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나은 커뮤니티 웰빙을 위해 지방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인식 분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기영화·김윤지·남채봉. (2015).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지역 주민 인식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33-62.
- 기영화·정서린. (2018). 광역자치단체의 커뮤니티웰빙 연구. 「지방행정연구」, 32(2): 183-210.
- 김순은. (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2): 201-216.
- _____. (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금정.
- _____.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태훈·서인석·기영화.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2): 81-109.
- 김흥규. (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 방법론의 이해. 「간호학논문집」, 6(1): 1-11.

- _____. (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화환·이태수·김종민·안태후. (2015).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소지역 분류 및 유형화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49(2): 229-240.
- 문광민·김동욱·임동완·윤성일. (2018).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안간 우선순위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175-202.
- 박광국·주효진·김옥일. (2001).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Q 방법론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35(1): 109-125.
- 서인석·이승중·기영화. (2014). 서울시 패널자료를 활용한 커뮤니티웰빙 개념구조와 측정지표의 적합성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101-130.
- 서인석·기영화·이승중. (2016). 커뮤니티웰빙 지표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의 탐색적 유형화- Kee의 커뮤니티웰빙 6자본요인 및 지표의 활용. 「한국행정연구」, 25(1): 49-76.
- 서인석·이승중. (2017a). 고차요인분석을 활용한 커뮤니티웰빙의 핵심지표 도출.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99-118.
- _____. (2017b). 지방행정서비스가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가: 커뮤니티웰빙의 매개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3): 1-35.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7.
- 심미영·염동문·전재명·박정배. (201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사회과학연구」, 28(4): 231-255.
- 오영균. (2017). 지방재정특성이 커뮤니티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31(3): 171-194.
-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Kee 6 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지」, 25(2): 1-29.
- 이승중. (2005).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제2판)」. 서울: 박영사.
- 이승중·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이승중·이지은·이혜림. (2020). 커뮤니티웰빙 지표 구축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9(2): 173-208.
- 이은남·서지민·주현옥·송영선·이동매·이복남·신선미·주연희·최옥희·허영희. (2006).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인식 유형: Q-방법론적 접근. 「대한간호학회지」, 36(7): 1242-1252.
- 이준영·최낙혁. (2018).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지」, 22(1): 27-52.
- 임동완·윤성일·문광민. (2020).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관련 논점 검토와 세부 실행과제의 우선순위 분석: AHP 기법의 적용.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 105-134.
- 최영출·기영화. (2017). Exploring the Configurations of the Factors Affecting Community Well-Being in Korea.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1-19.

Adams, B. G., Fischer, R., & Abubakar, A.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Well-Being and Value

- Priorities as Well as Intersubjective Norms Among Emerging Adults in South Africa. In *Well-Being of Youth and Emerging Adults across Cultures* (pp. 61-73). Springer.
- Armitage, D., Béné, C., Charles, A. T., Johnson, D., & Allison, E. H. (2012). The interplay of well-being and resilience in applying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Ecology and Society*, 17(4): 15-32.
- Barry, J., & Proops, J. (1999). Seeking sustainability discourses with Q methodology. *Ecological economics*, 28(3): 337-345.
- Beeton. (2006). *Society's forms of capital: a framework for renewing our thinking*. paper prepared for the 2006 Australian State of the Environment Committe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arigage, Canberra.
- Berkes, F. & Folke, C. (1998) Linking social and ecological systems for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in: F. Berkes and C. Folkes (Eds.) *Linking Social and Ecological Systems: Management Practices and Social Mechanisms for Building Resilience*, (pp. 1-2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A Primer on Q Methodology. *Operant Subjectivity*, 16(3/4): 91-138.
- _____. (1996). Q Method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4): 561-567.
- Burnell, J. (2013). Small Change: understanding cultural action as a resource for unlocking assets and building resilience in communities.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8(1): 134-150.
- Choi, N., Kim, J., & Lee, S. J. (2020). The Usefulness of Intersubjective Community Wellbeing as a Community Development Indicator: Evidence from Comparing Three Approaches to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Well-Being*, 3: 173-192.
- Choi, Y. C., & Jang, J. H. (2017).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Community Well-Being for Living Based on Systems Thinking: The Cases of Korean Local Communities. *Academy of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3): 1-16.
-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 Cox, D., Frere, M., West, S., & Wiseman, J. (2010). Developing and using local community wellbeing indicators: Learning from the experience of Community Indicators Victoria.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5(1): 71-88.
- Cross, R. M. (2005). Exploring attitudes: the case for Q methodology. *Health education research*, 20(2): 206-213.
- Cummins, R. A. (2018). *Measuring and interpreting subjective wellbeing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A review and way forw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 Diener, E., Lucas, A. P. P. R., Press, O. U., Lucas, R., Helliwell, J. F., Helliwell, J., & Schimmack, U. (2009). *Well-being for Public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 Dolan, P., Layard, R., & Metcalfe, R. (2011).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for public policy: recommendations on measure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 Forjaz, M. J., Prieto-Flores, M.-E., Ayala, A., Rodriguez-Blazquez, C., Fernandez-Mayoralas, G., Rojo-Perez, F., & Martinez-Martin, P. (2011). Measurement properties of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older ad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20(5): 733-743.
- Green, G. P., & Haines, A. (2015). *Asset building & community development*. Sage publications.
- Haybron, D. M. (2008). Philosophy and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In Eid, M. & Kee, Youngwha, Yunji Kim, & Rhonda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Learning in Communities*. Springer Briefs Series.
- Kee, Y., Kim, Y., & Phillips, R. (2015). Modeling community well-being: A multi-dimensional approach. In Y. Kee, Y. Kim, & R. Phillips (Eds.), *Learning and community approaches for promoting well-being* (pp. 1-15).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Kim, Y., Kee, Y., & Lee, S. J. (2015).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Perspectives of citizens,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1(2): 345-369.
- Kim, Y., & Ludwigs, K. (2017).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and individual well-being for public policy: The case of the community well-being atlas. In Phillips, R. & Wong, C. (Eds.), *Handbook of community well-being research*. (pp. 423-433). Springer.
- Kretzmann, J. P., McKnight, J. (1993). *Building Communities from the Inside Out: A Path Toward Finding and Mobilizing a Community's Assets*. Institute for Urban Policy Research, Northwestern University.
- La Placa, V., McNaught, A., & Knight, A. (2013). Discourse on wellbeing in research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3(1): 116-125.
- Lee, S. J., & Kim, Y. (2015). Searching for the meaning of community well-being. In *Community well-be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pp. 9-23). Springer.
- _____. (2016). Structure of Well-Being: An Exploratory Study of the Distinction Between Individual Well-Being and Community Well-Being and the Importance of Intersubjective Community Well-Being. In Y. Kee, S. J. Lee, & R. Phillips (Eds.),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pp. 13-37). Springer.
- Maggino, F., Lee, S., Kee, Y., Oh, Y. & Choi, Y. (2018). Identifying the Combinations of Conditions Affecting Well-being Communities in Korea. 「한국비교정부학보」, 22(4): 1-25.
- Markovich, Julia, Monika Slovinc D'Angelo, & Thy Dinh. (2018). *Community Wellbeing: A Framework for the Design Professions*. Ottawa: The Conference Board of Canada.
- Marks, N., & Shah, H. (2004). A well-being manifesto for a flourishing society. *Journal of Public Mental*

- Health*, 3(4): 9-15.
- Maybery, D., Pope, R., Hodgins, G., Hitchener, Y., & Shepherd, A. (2009). Resilience and well-being of small inland communities: Community assets as key determinants. *Rural Society*, 19(4): 326-339.
- McCrea, R., Walton, A., & Leonard, R. (2014).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vestigating community wellbeing and resilience. *Rural Society*, 23(3): 270-282.
- _____. (2016). Developing a model of community wellbeing and resilience in response to chang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9(1): 195-214.
- McHardy, M., & O'Sullivan, E. (2004). *First Nations community well-being in Canada: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CWB), 2001*: Citeseer.
- McKeown, B., & Thomas, D. B. (2013). *Q methodology* (Vol. 66). Sage publications.
- Miles, R. L., Greer, L., Kraatz, D., & Kinnear, S. (2008).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 a central Queensland case study. *Australasi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4(1): 73.
- Murphy, B. (2010). Community well-being: An overview of the concept. NW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Canada: Toronto. Available Online: http://nwmo.ca/uploads_managed/MediaFiles/1681_researchsupportprogram_communitywellbeingoverview.pdf*.
- OECD (2005), *OECD Regions at a Glance 200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reg_glance-2005-en.
- O'Sullivan, E., & McHardy, M. (2008). *The Community Well-being Index (CWB): Well-being in First Nations Communities, Present, Past, and Future1*. Aboriginal Policy Research Consortium International (APRCi). 5.
- Prilleltensky, I., & Prilleltensky, O. (2007). *Promoting well-being: Linking personal,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change*. John Wiley & Sons.
- Rath, T., Harter, J. K., & Harter, J. (2010). *Wellbeing: The Five Essential Element*. Gallup Press.
- Stanton Rogers, Rex (1995). Q methodology. In J.A. Smith, R. Harré & L. Van Langenhofe (Eds.), *Rethinking methods in psychology* (pp. 178-192). London and Thousand Oaks, CA: Sage.
- Sung, H., & Phillips, R. (2016). Conceptualizing a community well-being and theory construct. In Y. Kee et al.(Eds.), *Social factors and community well-being* (pp. 1-12). Springer.
- _____. (2018). Indicators and community well-being: Exploring a relational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Well-Being*, 1(1): 63-79.
- Thompson, G. C. (1966). The Evaluation of Public Opinion. In Berelson, B., & Janowitz, M. (Eds.).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2nd ed.). New York: Free Press.
- Tonon, G. (2017). Community well-being and national well-being: The opinion of young people. In R. Phillips, & C. Wong(Eds.), *Handbook of community well-being research* (pp. 523-530). Springer.
- VanderWeele, T. J. (2019). Measures of Community Well-Being: a Templat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Well-Being*, 2(3): 253-275.
- Watts, S., & Stenner, P. (2005). Doing Q methodology: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1): 67-91.

- Webler, T., Danielson, S., & Tuler, S. (2009). Using Q method to reveal social perspectives in environmental research. *Greenfield MA: Soci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54: 1-45.
- White, S. C. (2008). *But what is wellbe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and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regeneration and wellbeing: research into practice, University of Bradford.
- Wilkinson, K. P. (1991). *The Community in Rural America*.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Wiseman, J., & Brasher, K.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Public Health Policy*, 29(3): 353-366.

인터넷 자료

- City of Sydney. "Research and Statistics: Community Indicators". 접속일자: 2019.12.15. <https://www.cityofsydney.nsw.gov.au/learn/research-and-statistics/community-indicators>.
- University of Waterloo. "Canadian Index Wellbeing". 접속일자: 2020.06.23. <https://uwaterloo.ca/canadian-index-wellbeing>.

A Q-Methodological Analysis of Perception Types of Community Wellbeing

Lee, Ji-eu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types of community wellbeing and analyze characteristic of each type by using Q methodology. This study attempts to supplement the previous literature on community wellbeing that focuses heavily on quantitative analysis and that lacks research on subjective perception of community wellbeing. To this end, I extract 34 statements as Q samples from the community wellbeing model and select 34 subjects of study as P samples from a group of public officials, experts, and general residents. I use PQMethod 2.35 software for factor analysis. The study finds three types of perception: 1) infrastructure-capital-oriented, 2) human-development-capital-oriented, and 3) environmental- and social-capital-oriented types. By identifying these perception types, this study provides basic inform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prioritize the needs of their residents. It would help local governments approach community wellbeing by types so as to provide active and preemptive administrative services, which would further help them systematically manage their administration in general by packaging their policies on the basis of these perception types. In a broader sense, this study suggests usefulness of time- and cost-effective Q methodology.

[Key Words: Community Wellbeing, Q-methodology, subjective perceptions, perception types]